2026년 4월 30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모디 총리,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지속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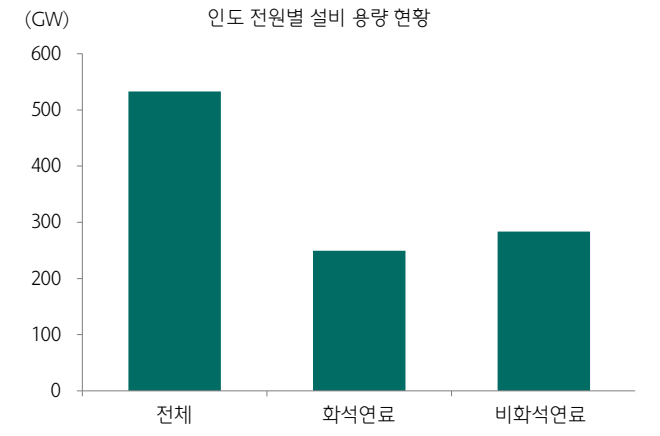
인도 모디 총리는 최근 월례 대국민 라디오 연설 만 키 바트(Mann Ki Baat)에서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의 빠른 증가세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대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닌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에도 인도의 비화석연료 기반 발전 설비 확대와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기반 발전 설비 용량 500GW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도는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거점으로도 급부상하면서 산업용 전력수요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이상고온과 폭염이 잦아지는 점 역시 전력수요 증가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도시화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냉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온 현상이 빈번해질수록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전력 소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나타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4월 24일 인도의 피크 전력수요는 가정 및 상업 부문의 냉방 가전 사용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확충이 불가피한데,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을 감안하면 추가 수요를 석탄 발전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규 전원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입 경로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며,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화했다. 물론 인도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국내 석탄 생산량도 풍부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전력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석탄 역시 일부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및 물류 병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구조가 대외 변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 전원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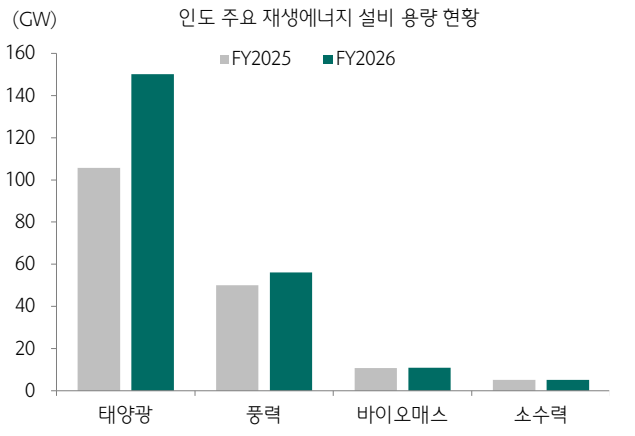
결국 인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력수요 증가, 탈탄소 전환, 에너지 안보 강화가 맞물린 구조적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중장기 목표와 전력수요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며, 증시 관점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전력망, ESS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정책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인도 전원별 설비 용량 현황



자료: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주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현황



자료: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하나증권